

2016 한국예술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 문화산업과 예술 · 교육

| 주최 · 주관 |



사단  
법인 한국예술교육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rts Education  
[www.artsedu.co.kr](http://www.artsedu.co.kr)

| 후원 |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2016 한국예술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장 소 :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관 교육공학실  
 일 자 : 2016년 11월 5일  
 주 제 : 문화산업과 예술·교육

<학회등록> 13:30-14:00  
 <학술대회> 14:00-17:30

사 회 : 김형숙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교수, KAAE 학술위원장)

일 시	발표 및 내용
14:00~14:10	개회사 : 김순정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 무용예술학과 교수, KAAE 회장) 축 사 : 김형숙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KAAE 명예회장)
<b>제1부</b>	
14:10-14:40	기초발표 : 무엇을 연결할 것인가 발표자 : 김창경 (전 교육과학 기술부 제2차관,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학사, 동대학원 석사, M.I.T 박사 - 전 교육과학 기술부 제2차관 • 산업협력대상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 연구개발 유공자 과학기술부 부총리 표창 • 산업 기술진흥 유공자 대통령 표창 • Nano Korea 2006 혁신상 •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유공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과학기술훈장 응비장 • 황조근정훈장
14:40-15:10	발표 1 : 이 시대의 문화콘텐츠 비즈니스는 융합과 협력 발표자 : 남경림 ((주)코이안 대표, Gallery K대표/설립자)
15:10-15:40	발표 2 : 음악 + 과학 + 교육 발표자 : 여운승 (이화여자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15:40-16:10	발표 3 : 문화산업시대의 예술교육 발표자 : 김정섭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교수)
16:10-16:20	coffee break
<b>제2부</b>	
16:20-17:20	종합토론 민경훈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방금주 (서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김형숙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손지현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윤혜선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 무용과 교수) 김석범 (수원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
17:20-17:30	폐회식

# 목 차

---

## ◆ 제 1 부

- **기조발표** : 무엇을 연결할 것인가 / 5  
김창경 (전 교육과학 기술부 제2차관,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
- **발 표 1** : 이 시대의 문화콘텐츠 비즈니스는 융합과 협력 / 6  
남경림 ((주)코이안 대표, Gallery K 대표/설립자)
- **발 표 2** : 음악 + 과학 + 교육 / 7  
여운승 (이화여자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 **발 표 3** : 문화산업시대의 예술교육 / 8  
김정섭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교수)

## ◆ 포스터

- 음악의 생태학적 실행 - 음악치료를 중심으로 - / 16  
문지영 (숙명여자대학교)

## ◆ 한국예술교육학회 <아트홀릭(Artholic)> 월례세미나 추진경과 / 18

## ◆ 2015, 2016 우수논문

-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Harvard Project Zero)와 미래 예술교육에 대한 전망 / 22  
이지언 (조선대학교)
- 지역문화예술교육의 현황: 울산지역 학교파견 예술강사들의 인식분석 / 23  
백경미 (울산과학기술원), 위미나 (부산외국어대학교), 최한울 (서울대학교)
- 재외한인을 위한 한국전통공연예술교육의 현황과 과제 연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을 중심으로 / 24  
양민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위한 융합예술 프로그램 활용방안 / 25  
정성희, 김형숙 (인하대학교)
- 음악-과학 융합인재교육(STEAM)프로그램 개발:  
대중음악 악기 제작과 앱 작곡을 중심으로 / 26  
양은주 (명지전문대학), 강민선 (국제예술대학교)

## 발표 및 포스터

● **기조발표 : 무엇을 연결할 것인가**

- 김창경 (전 교육과학 기술부 제2차관,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

● **발 표 1 : 이 시대의 문화콘텐츠 비즈니스는 융합과 협력**

- 발표 : 남경림 ((주)코이안 대표, Gallery K 대표/설립자)

● **발 표 2 : 음악 + 과학 + 교육**

- 발표 : 여운승 (이화여자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 **발 표 3 : 문화산업시대의 예술교육**

- 발표 : 김정섭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교수)

● **포 스테 : 음악의 생태학적 실행 - 음악치료를 중심으로 -**

- 문지영 (숙명여자대학교)

## 무엇을 연결할 것인가

김창경 (전 교육과학 기술부 제2차관,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

연결하면 문화산업에서 새로운 창조가 나온다.

스티브잡스는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s. So you have to trust that the dots will somehow connect in your future.” 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였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 ‘현재의 사건’, ‘현재의 상황’을 연결하면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것이다.

지금 문화·예술 산업은 새로운 변혁기이다. 키워드는 연결이다. 연결하는 방법도 예전에는 문화·예술인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방법들이 다양하게 생기고 있다. 우리는 첨단 과학기술이 Commodity (우리가 늘 쓰는 일상용품) 인 시대에 살고 있다. 예를 들면 5년 전만해도 일반인들은 구경하지도 못했던 3D 프린터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지금 오픈소스 하드웨어 아두이노가 예술 분야까지 융합 적용되어 문화·예술인들도 DIY(Do It Yourself)의 범주에서 ICT의 기술을 직접 다루어 자신의 창조 작업에 활용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핵가족화, 청년실업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나홀로 족’이 늘고 있다. ‘그래도 옛날이 좋았다.’...등등, 이들 트렌드도 문화적으로 녹여내면 대박 상품이 나온다. 알파고 이후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인공지능도 문화예술에 연결될 수 있다. 미니멀리즘, 감수성에 연결된 디자인도 대세이다.

이번강연에서는 새로운 문화·예술 산업을 만들 수 있는 動因을 살펴보기로 한다.

---

2016 KAAE 추계학술대회 문화산업과 예술·교육

발표 1.

# 이 시대의 문화콘텐츠 비즈니스는 융합과 협력

남경림 ((주)코이안 대표, Gallery K 대표/설립자)

---

발표 참조

## 음악 + 과학 + 교육

여운승 (이화여자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음악과 과학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각기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영역에 속하는 음악이 풍부한 감정과 자유로운 표현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학문적인 성격이 강한 과학의 경우 논리적인 사고와 냉철한 판단력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성격에서 볼 수 있듯이, 음악과 과학은 각각 긴 세월을 걸쳐 확립된 서로 다른 연구 방법론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음악과 과학의 융합 영역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음악을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전통적인 음악에서는 상상하지 못하였던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반의 예술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작품 아이디어들이 매체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속속 현실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대중들은 음악의 작곡, 연주, 제작 및 감상에 이르는 전 영역에 걸쳐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융합 영역에서의 “교육”의 경우 아직 그 체계가 온전히 정립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전히 서로 다른 수많은 교수법들이 혼란 속에 시도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이와 같이 음악과 과학의 교차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실험들을 발표자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관련된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의 음악 - 과학 융합 교육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폰 기반의 음악 연주, 시각화 작업을 통한 비주얼 음악,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연 등의 사례에 대하여 이를 구현하는 과정, 인적 자원의 구성 및 그 기반이 되는 교육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산업시대의 예술교육

김정섭\*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교수)

## I. 문화산업시대의 도래와 예술교육계의 고민

문화산업은 넓게는 인간이 고유한 감성,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창작한 문화 콘텐츠가 기획, 제작, 유통, 소비되는 전 과정을 망라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좁게는 일반 시민인 대중을 상대로 오락적 요소가 갖는 상품을 생산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뜻한다. 문화산업시대란 문화예술 분야의 창의적 산물이 예술작품이란 성격을 넘어 '상품(商品)'으로 인식되고 평가받는 시대를 의미한다. 문화예술의 본래 기능은 창조를 통해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해 기쁨과 감동을 주고 나아가 정신세계를 충만하게 하는 것인데, 문화산업시대에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만족과 효용을 주는 상품의 기능이 더욱 강조된다. 예술작품이나 창작 행위가 일반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처럼 무한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메커니즘에 편입되는 것을 뜻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이란 말은 낮익은 용어지만 문화예술계에서는 아직 낯선 측면이 있다. 어떤 이는 이를 격하나 폄하의 뉘앙스로 받아들이며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류열풍과 주5일 시대 개막, 실시간 글로벌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매체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 금융자본이 문화예술계로 몰려들면서 형성된 것이 바로 '문화산업'이다. 문화산업은 본질적으로 '자본', '경쟁', '생존'의 논리가 강조되기에 그간 본래적 의미의 예술적 완성에 집중했던 예술교육계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미래 예술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문화산업시대 예술교육의 새로운 방향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문화산업 형성 초기에는 문화산업의 위력이 한류의 부침(浮沈) 과정처럼 한때의 광풍에 그칠 것이라 보고 예술교육과 문화산업의 접근방식은 분리되어야 하며, 산업 논리로 예술교육을 재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예술교육이 전통적 체제를 고수하다가가는 사멸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변화에 맞춰 교육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예술교육의 관점과 지향에 관한 두 가지 견해의 충돌은 문화산업시대를 맞이한 요즘 불가피한 현상이다.

\*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대학원 교수, lakejs@naver.com

이러한 예술 교육관의 대립은 사실 문화산업시대를 맞아 도드라졌을 뿐 예술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강도만 달랐지 여진(餘震)처럼 줄곧 진행돼온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수예술은 계급 간 구별짓기를 강조하던 시대에 왕가와 귀족들이 향유하는 ‘격식의 예술’이자 ‘고급예술’로 탄생하였다. 그러나 대중예술은 피지배 계층인 하층민들이 애환과 고충을 달래며 향유하던 ‘통속예술’로 출발하였다. 지배계층은 대중예술이 기존의 가치나 질서를 위협하고 훼손한다고 보았기에 질이 낮은 ‘저급문화’로 인식하였다. 나아가 아도르노 등 프랑크푸르트학파는 1940년대부터 대중예술 등 대중문화는 프롤레타리아들을 환상적인 현실로 도피시켜 비판 기능을 무력화함으로써 부르주아의 권력독점과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 및 재생산을 고착화 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비판하며 대중문화 대신 ‘문화산업’이란 말을 쓰자고 제안하였다. 이렇게 철학·사회학적인 의미로 통용되었던 문화산업의 성격은 유네스코가 1970년대부터 경제적 관점의 연구를 본격화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산업 중심의 의미로 변화하였다(김성은, 2015).

오늘날 문화산업의 형성은 순수예술에 대한 대중예술의 도전과 위상 역전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피지배층이 즐기던 대중예술은 봉건사회 붕괴로 인한 시민계급 등장, 산업혁명 발달로 인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 중산층의 증가, 방송·통신 기술의 발달, 교육 보급 등이 촉진되어 추격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런 변화와 사건으로 대중예술과 대중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된 것이다. 이어 21세기 정보혁명은 대중예술의 위상 역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인터넷과 디지털 매체를 통해 언어와 지역을 초월한 콘텐츠의 전 지구적 유통이 가능해졌으며, 수용자였던 대중들까지 창작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 초부터 접화된 한류열풍, 대중 스타의 부상 및 지위 향상은 대중예술, 대중문화, 문화산업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꿔 놓았다. 정부도 대중예술 분야의 산업화로 국부(國富) 창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들어 정책적 지원에 나서게 되었다. 대신 순수예술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대중예술이 폭넓은 사랑을 받으면서 순수예술은 고급예술이고, 대중예술은 저급예술이란 인습적 통념도 점차 희석되었다.

문화산업은 이렇게 예술 및 삶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꿔놓았기에 예술교육제도 급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방어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적극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초점은 예술교육 본연의 철학과 지향점, 방법론을 어떻게 추려서 가다듬고, 새로운 문화산업 시대가 요구하는 생각, 방법, 제도를 어떻게 추가하여 보다 짜임새 있는 교육을 실행할 것인가에 모아진다. 그간 많은 교육기관들이 문화산업시대의 도래를 목도하며 깊은 고민과 숙의 끝에 선도적으로 융합형 예술교육 체제를 도입하거나 학생들이 추후 문화산업의 적용에 도움이 될 과목을 추가하는 등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그런 흐름은 실행에 있어서는 아직 대세가 아니며, 실험 단계에 머물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국내 예술교육계에서 향후 교육의 변화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는 데다 컨센서스(consensus)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4년 11월 조사에서 전국의 예체능계 학과 교수들은 △ 취업 △ 대학 및 학과 평가 △ 교육과정 운영 및 개편 문제를 자신들이 당면한 고민거리 1, 2, 3위라고 각각 꼽았다(김계원, 양은주 외, 2016)는 점은 문화산업시대에 맞는 예술교육 전환이 현재 얼마나 뜨겁고 긴요한 과제인지 명증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문제 제기와 논의를 계기로 문화산업의 시대에 적합한 예술교육은 과연 무엇인지, 그 방향성과 내용, 그리고 과제를 각 쟁점별로 탐색하고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할 것이다.

## II. 예술교육 이제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 1. 문화산업 현장 체화형 예술교육

‘예술(art)’은 아름다움이나 미적 가치를 구현하는 인간의 모든 창조적 활동을 뜻한다. 따라서 인간에게 내재된 모방, 유희, 표현, 장식 등의 본능을 끄집어내어 발현하는 것만으로도 본래 목적을 실현한다. 그러나 이미 산업화된 예술현장에 잘 적응하려면 예술교육이 예술가 자체의 예술적 기능 심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문화산업의 변화를 반영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및 교육할 교육자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예술계 학생들은 하나의 작품을 선보이는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지, 아티스트들은 작품 제작과정에서 제작진 및 각 분야의 스텝들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소통해야 하는지, 작품 제작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여 어떻게 쓰이는지, 작품 홍보와 마케팅은 어떻게 하여 보다 많은 관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현장에 진출하여 잘 적응하려면 어떤 능력과 감각을 길러야 하는지를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배워야 한다. 예술의 상업화 경향도 문화산업의 특성이기에 과함은 경계해야 하지만 그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문화산업의 본질과 산업현장의 실재를 이해하고 그것을 몸에 익히도록 해야 한다. 부르디외와 빅토리아는 “예술가라면 고독한 존재로 처신하지 말고 예술을 둘러싼 모든 영역과 소통과 논의를 하고 이들 영역과 결합된 행동을 해야 한다”(Bourdieu, 1993; Victoria, 2003)고 말했다.

아울러 고위험 고수익(hi risk, hi return), 공공재적 특성, 경험재적 특성, 문화적 할인의 적용, 창구효과, 네트워크 외부효과 등과 같은 문화산업의 경제적 특징과 정치성 등을 실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 과목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바둑판이 예술현장이라면 검은 돌과 흰 돌은 예술현장에 진출하는 졸업생의 처지와 같다. 전체 좌표와 형세, 디테일한 맥락을 잘 알고 돌을 놓듯이 산업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영역을 골라 진입하여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현장이 새로운 기기와 기술을 도입하면서 속도 있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교육 현장의 교육 공간과 설비도 시대에 맞게 혁신하는 게 최선이다(김정섭, 2016). 그러나 여건이 허락하지 못할 경우 산학협력, 현장학습 등을 강화하여 예술현장에 대한 이해와 적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자들은 현장과 더욱 밀착하여 변화된 트렌드와 감각을 익히는데 주력해야 한다. 예술 현장 출신들을 교사, 교원 등으로 초빙하여 보다 생동감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이 예술인과 문화예술 활동에 자금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활동인 ‘메세나(mecenat)’를 예술교육과 잘 접목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다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 전환에 따라 종합대학마다 딸려 있는 예술대학을 몇 개의 특화된 예술대학교로 통합 및 재편하여 시대에 맞게 특색을 갖춰 나갈 필요도 있다.

## 2. 순수·대중예술의 구별 짓기 금지와 융합

예술은 어원인 ‘테크네(techne)’란 말의 변천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16세기까지 ‘기술’이란 뜻으로 통용되었다. 이에 앞서 고대 소피스트와 중세의 스콜라 철학자들은 상상력을 갖고 하는 일은 예술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중세인들은 수사학, 논리학, 기하학, 음악, 천문학 등을 포함하는 인문학만이 예술이라고 보았다. 17세기 후반부터는 회화, 조각, 건축 등이 예술로 분류되었다. 급기야 18세기가 되면서 예술이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자리를 잡았다. 바퇴(Charles Batteux)는 예술을 ‘순수예술’과 ‘기계적인 예술’로 구분하고 순수예술의 격을 숙련된 기술만을 가진 기계적 예술보다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단일 원리로 환원된 순수예술’(1746)이란 논문에서 수공과 같은 ‘기계적인 예술’에서 분리시켜 자연의 아름다운 모방 원리(창조성)가 투영된 음악, 시, 회화, 조각, 춤을 ‘순수예술(fine art)’로 규정하였다. 대중예술의 역사와 변천 과정은 글머리에 전술한 바 있다.

이 같은 순수예술의 개념 변천사를 살펴보면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구분 짓기가 무의미함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나 순수예술은 그간 이런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급예술과 격식의 예술이란 과거의 자위적 위상과 이미지를 강조하며 변화하는 것을 주저하였다. 순수예술에 대한 개념이 확고한 예술가들은 변화 자체가 순수예술의 붕괴 또는 자기부정이라 인식했을 수도 있다. 매스미디어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크게 성장한 대중예술에 대해 여전히 격하 또는 폄하하는 시각도 남아 있다. 그러나 수용자들이 먼저 변하며 그 개방성을 넓히고 있다. 문화예술을 향유·소비하는 수용자들의 의식이 바뀌면서 양자를 구분 짓는 인식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 대중가수 밥 딜런(Bob Dylan)의 노래 가사가 ‘위대한 문학’으로 평가받아 당대의 걸출한 시인과 소설가 등 문학가들을 제치고 ‘2016년 노벨문학상’을 받게 된 것도 인식의 일대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예술교육계는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간의 편견이나 반목을 해소하고 서로의 장점을 교육에 승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대중예술의 대중친화적인 정교한 마케팅 및 흥행 전략은 순수예술이 반영할 부분이며, 순수예술의 정치한 구성과 세련되고 장중한 퍼포먼스 스킬은 대중예술이 수용할 경우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 본다.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다시 말해 문화산업과 순수예술이 서로 화해를 해야 한다는 주장(2007)이 있지만, 이제는 화해 수준을 넘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높은 벽을 완전히 허물고 하나가 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일본조차 폐지한 자연계와 인문계의 구별이 여전히 학제에 남아있는 것처럼 국내 예술계에는 상호 간의 차별적 인식과 반목이 크게 남아 있다. ‘융합(融合)’의 원뜻이 ‘녹아서 하나로 합쳐진다’이듯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크로스 오버(crossover)’, ‘퓨전(fusion)’ 단계를 넘어 합일(合一)하여야 한다. 일찍이 과학(자연계)과 인문학(인문계)의 상호 무관심과 고립 문제를 지적한 영국의 작가 겸 과학자 스노(Snow, 1959)는 “예술의 융합교육은 서로 연관된 분야가 자연스럽게 조화되어 시너지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3. 복잡다기한 시대를 헤쳐나갈 전인적 예술교육

문화예술 수용자들은 예술가의 기능적 탁월성에 감탄을 하지만 그가 가진性情(性情)과 생활양태, 가치관과 사고방식 등이 마음에 들면 더 큰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과거에는 대중을 상대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의도적 위장'이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SNS 등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자투리 정보까지 살살이 유통되는 시대에는 이제는 그것이 어렵게 되었다. 문화산업 시대 예술가들은 매스미디어 및 대중들과의 소통을 거치지 않고는 예술적 성취와 이에 뒤따르는 경제적 성공을 기약할 수 없기에 모든 면에서 잘 훈련받고 수양해야 한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예술적 기능 외에도 예술가로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이 서로 연계 및 통합되도록 전인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민경훈, 2013). 기능적으로 탁월한 수준 달성에만 초점을 두어 배출한 예술가는 이 시대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한층 수준이 높아지고 명민해진 수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예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복잡 다양한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못해 일탈하거나 목숨을 끊는 '불행한 예술가들'도 속출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첫째, 예술가는 본질적으로 표현욕구가 강하고 반응에 민감하며 감정의 기복이 심한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학적인 자기관리와 경영에 도움이 되는 과목 등을 반드시 신선헌 교육해야 한다. 예술철학, 심리학 등 인문학 교육은 물론 성과관리 노하우를 익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을 통해 미디어, 인터넷과 댓글, 팬덤, 스타덤, 수용자, 평단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환호의 반대편인 비판과 비난에 대한 대처 교육이 미약했기에 약 주고 병 주는 대중문화의 양면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정영근, 2005). 예술가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두려움이란 점을 고려할 때 자기 능력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동시대 예술가에 대한 경쟁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도 잘 극복하는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셋째, 인문학 강화, 독서와 연관예술 감상 장려를 통해 상상력의 원천을 풍부하게 확보하고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인문학은 예술창작 현장에서 적용되는 핵심능력(전선자, 2011)으로 심미안(aesthetic sense), 창의성(creativity), 몰입(immersion), 영감(inspiration), 관조(contemplation) 등 콘텐츠 창작의 근원적 에너지이자 모티브가 된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깊다. 교육자는 독창성이 뛰어난 천재적 예술가들이 잘 성장하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Mill, 1859).

넷째, 개인, 이웃,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능력, 비전, 리더십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Tung, 2006). 이런 교육은 예술교육의 궁극적 목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 가운데 평범한 소시민을 지향하는 사람이나 대 스타를 꿈꾸는 사람이나 모두 갖춰야 할 덕목이다. 가령 미국 로드아일랜드예술대학(RISD)은 입학 후 모든 학생을 의무적으로 2년간 기숙사에 입교시켜 단체 활동과 교양과목 교육을 통해 소통 능력과 리더십,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예술가라면 예술작품 제작과정 외에도 작품을 진행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민원을 지혜롭게 해결할 줄 알아야 기능인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하면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희용, 윤아영, 김재득(2014)의 조사결과, 전국 대학에서 예술계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예술과 다른 학문간 융합교육이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지만, 그것은 교양과 전공 등 특정 영역에 국한된 데다 실용성의 강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고차원적인 창의력 향상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술계 학생들에게 문제해결 능력, 비전, 리더십을 길러주는 유기적인 교육을 하기에는 아직은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 4. 다빈치적 직관을 갖춘 '싱어송라이터형' 교육

현대사회가 갈수록 다양화, 다원화하면서 문화예술계도 어느 한 분야나 장르만을 잘해서는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인간을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객체가 아니라, 따뜻한 심장을 지닌 완성된 유기적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이런 흐름은 더욱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술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이 모두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될 수 없다. 창작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섭렵하여 자신이 가장 잘하는 예술 분야에서 작사, 작곡, 노래를 모두 능숙하게 소화하는 싱어송라이터(singer-songwriter)처럼 '다기능형 예술가가 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그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다기능형 예술가로 크도록 이끌며 교육하는 것이 예술적 자아실현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문화산업에 부합하는 예술교육 방법이라 본다. 인재를 상담 및 분석하여 한 분야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고, 한 분야에 집중하면서 연관된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가능하다면 다기능형 예술가로 키우는 게 좋다. 학생이 자각을 하든지 교육자가 발견하여 자극을 주든지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은 매우 다양할 것이다. 철학과 미학을 공부한 뒤 문학, 작곡, 지휘, 피아노, 녹음까지 두루 섭렵한 독일 음악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64~1949)의 사례를 굳이 제시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 그런 과정을 거쳐 자신의 미래를 일궈가는 학생이나 예술가들이 많다.

다기능형 예술가를 지향하면 각각의 예술적 재능과 직관이 상호 자극하면서 오묘한 조화를 이뤄 새로운 예술을 싹틔우는 창작, 응용, 확장의 묘미가 있다. 산업적으로도 예술현장에서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경제적 수준의 향상으로 요즘 세대의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학교, 방과 후 학습, 개인 교습, 학원 등을 통해 미술, 음악, 무용, 연기, 노래 등 기초적인 예술교육을 받고 자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화산업시대에 맞는 다기능형 예술교육으로 교육관을 전환을 하는데 기초적인 여건이 나쁜 것은 아니다. 예술 연관 분야를 잘 조화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면 생각과 개성이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 스트레스를 줄이며 자신의 창의력을 일관성 있게 구현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상영, 공연 등 작품을 실현하는 제반 비용도 절약하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등장한 가수들은 싱어송라이터가 많은데, 이들은 어린 시절 부모의 권유로 받은 음악교육과 학교교육을 바탕으로 자신의 노력을 덧붙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영화계에서는 한국 영화아카데미 개교이후 다양한 배경을 갖춘 학생들이 입학해 영화의 세부영역을 두루 섭렵하도록 설계된 교육 시스템 덕분에 봉준호, 최동훈 등 시나리오, 각색, 연출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영화감독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개인적 성공은 물론, 한국영화의 중흥시대를 이끌었다.

### Ⅲ. 논의 및 토론 과제

앞의 논의에서 문화산업의 시대에 필요한 예술교육의 방향은 문화산업 현장 적응형 예술교육, 순수·대중예술의 구별 짓기 금지와 융합 교육, 전인적 예술교육, 다기능형 융합 교육으로 집약되었다. 그러나 이란 예술교육의 새로운 지향점이 교육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실행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선구적인 관점을 가진 명민한 교육자 또는 앞서가는 어느 학과나 특정 학계의 노력으로만 이뤄질 수 없다. 교육 정책, 교육자, 교육기관과 커리큘럼 혁신의 차원에서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가 필요하기에 각 부문의 역할과 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논의는 일반 학생들을 위한 예술교육보다 예술계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초점을 맞춰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산업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실현하려면 교육 정책의 측면에서 문화산업시대를 짜임새 있고 건강하게 이끌어나가는 데 필요한 문화예술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하다. 생태계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취학기, 초중고, 대학으로 연계되는 예술교육이다. 앞에서 제시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각각의 시기에 어떤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한다. 숫자놀음 같은 취업을 수치 등에 구속되지 않고 설정한 교육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간섭을 최소화하고 정책, 재정 등에서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보다 큰 틀에서 현재의 종합대학 체제가 바람직한 지에 관한 정책적 고찰도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는 미국 클린턴 정부가 학교예술 교육을 실행하면서 무용, 댄스, 연기, 시각영상예술 등 4개 분야로 나눠 골고루 경험하도록 한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영국도 창조산업을 육성하면서 정부가 예술교육에서 정규학교-예술직업학교-문화산업계-연구기관 등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연계안을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창조산업교육포럼 운용, 창조산업 직업교육 확대, 예술교육과 비즈니스 클러스터 구축, 영상전문 국립대 신설, 기업·학생·교육자를 결합한 파트너십 운용, 학위과정 확대 등의 정책으로 나타났다(이영주, 2010). 미국에서도 2007~2009년 대불황기에 예술교육 예산이 크게 축소되었듯이 경기가 위축되면 예술교육 예산확보가 쉽지 않다(Berube, 1999; Chris, Dan, 2013). 우리나라에서 최근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술교육 예산의 안정적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예술교육 현장의 교육자들이 변해야 한다. 문화산업이 예술교육에 던지는 함의는 교육기관에서도 예술계 학생들의 미래를 외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교원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확실하게 변해야 한다. 예술계 학생들의 미래를 잘 이끌고 그런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충분한 자극과 지도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간 예술교육 지도자들은 특정 장르나 전문 분야에 능숙한 분들이 임용되어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는 콘셉트였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자들은 자신만의 전문 영역이 있었기에 굳이 다른 분야를 섭렵하거나 통섭할 필요가 없었다. 예술가인 동시에 교육자인 이중적 위상을 갖는 예술계 교원들은 그런 배경 위에서 전공 분야의 제자들을 잘 길러내는 것만으로도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문화산업시대에는 과거의 접근법으로는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길러낼 수 없다. 교원이 환경변화에 맞춰 먼저 변해야 그런 토양 위에서 변화된 시대에 맞는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다. 특정 세부전공에 천착한 기존 체제의 교원들은 예술산업 환경 변화를 수용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눈과 귀와 오감을 열고 현장과 쉽 없이 교류하며 자신을 재교육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경험이 많은 다기능형 교육자들을 많이 임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에 덧붙여 보조적으로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예술가들이 정책 당국이나 학교의 지원 아래 자신의 출신 학교를 방문해 후배들을 교육하는 '하방운동형 예술교육'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기관과 커리큘럼의 혁신이 필요하다. 예술교육은 해당 분야의 교원이나 학과의 힘만으로는 변화를 피하기 어렵다. 예술계 교육자들의 인식 전환만으로는 문화산업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을 이뤄내기 어렵다는 뜻이다. 총장, 교장 등 학교 경영 책임들의 깊고 세심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예술교육에서 융합교육이나 문화산업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과목을 도입하는 커리큘럼의 개편은 많은 학과 및 교원들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고, 재정적 소요도 만만치 않아 보다 미래 지향적인 결단과 능숙하고 세련된 조정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술계 교육자들은 미래 예술교육의 방향과 지향점, 목표,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요소들에 관하여 의견을 모아 학교를 잘 설득해야 한다. 학교 단위의 교육자들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모아 건의하여 정부 당국을 설득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계원, 양은주, 최정수(2016). 예체능계 대학인력 공급 현황 및 인식분석. *예술교육연구*, 14(1), 1-16.
- 김성은(2015). 문화산업론과 문화산업 연구의 계보학, *문화산업연구*, 15(4), 49-65.
- 김정섭(2016). 현업 배우들의 배우요건 평가에 나타난 연기예술 교육 개선 방향, *예술교육연구*, 14(3), 235-252.
- 민경훈(2013).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외국의 사례 고찰을 통한 역량 제고, *예술교육연구*, 2, 13-34.
- 문병호(2007). *문화산업시대의 문화예술교육*. 자연사랑.
- 이에스더(2007). 문화 콘텐츠산업과 음악교육의 실용적 접근, *음악과 민족*, 34, 355-372.
- 이영주(2010). 창조산업과 예술교육. *한국예술연구*, 2, 45-72.
- 이희용, 윤아영, 김재득(2014). 국내 대학 인문예술 융합교육의 필요성과 현황 연구, *예술교육연구*, 12, 129-147.
- 전선자(2011). 문화예술교육과 인문학적 바탕. *한국문학과 예술*, 8, 103-127.
- 정영근(2005). 문화와 교육에 대한 교육학적 고찰: 문화산업시대 교육철학의 과제, *교육철학*, 33, 157-173.
- Berube, M. (1999). Arts and education. *The Clearing House*, 72(3), 150-153.
- Bourdieu, P. (1993). *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Oxford: Polity.
- Chris, R. & Dan, B.(2013). The Great Recession of 2007 to 2009 : It's Impact on Funding and Perceptions of the Value of Arts Education by the School Administration in the Borough of Manhattan, New York City. *Proceedings of ASBBS(ASBBS Annual Conference: Las Vegas)*, 20(1), 651-663.
- Mill, J. S. (1859). *자유론(On Liberty)*. 권혁 역(2016). 서울: 돌출새김.
- Snow, C. P.(1959). *Two Cultures?: The Significance of C. P. Snow*, The Spectator.
- Tung, R. L.(2006). Of Arts, Leadership, Management Education, and Management Research: A Commentary on Nancy Adler's "The Arts & Leadership: Now That We Can Do Anything, What Will We Do?",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5(4), 505-511.
- Victoria, D. A. (2003). *예술사회학: 순수예술에서 대중예술까지(Sociology of the Art: Exploring Fine and Popular Forms)*. 최셋별, 한준, 김은하 역(2010), 서울: 살림.



## 음악의 생태학적 실행 - 음악치료를 중심으로 -

문지영(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에 있어서 생태학적인 실행은 사회 문화 공동체의 다양한 계층과 물리적인 환경 간 또는 그 안에서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일차적인 초점을 가지는 음악과 음악적 경험의 모든 적용을 말한다. 이것은 생태학적 단위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공동체가 그 구성원의 건강 문제를 야기 시킴으로 인해 중재가 필요한 경우 개인, 가족, 공동체, 사회 문화적 환경에 초점을 두고 다양하게 실행된다. 이 실행의 기본 전제는 하나에서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다른 것의 변화로 인도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이 건강해 지도록 돕는 것은 개인이 속한 가족, 공동체, 사회 문화 등 생태적 환경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생태적 환경을 건강하게 하는 것 또한 구성원 개인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개인과 생태적 환경을 서로 조화롭게 하는 것은 이 둘을 모두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악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방법에서 생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음악은 그 자체가 조직된 시스템으로서 음악 또는 음악적 경험의 각 층은 다른 전체의 부분이므로 각각의 부분과 전체는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둘째, 음악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 문화적 시스템의 다양한 영역과 층에서 발견되는데 여기에서 음악은 촉매제 또는 통합제로 작용한다. 음악치료에서 생태학적 실행은 치료 세팅에 구애됨 없이 확장됨으로써 개개인 클라이언트 - 치료사 관계를 넘어 개개인 클라이언트와 공동체, 치료사와 공동체, 공동체 내의 구성원 간 그리고 공동체 간의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다.

보조적 수준	보충적 수준	집중적 수준	일차적 수준
<p>집단에 행해지는 모든 음악 또는 음악적 경험의 사용을 말하며, 치료 집단은 자연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거나, 의도적으로 형성된 공동체.</p> <p>1) 기능적 음악 (Functional Music)</p> <p>2) 의식적 음악 (Ceremonial Music)</p> <p>3) 영감적 음악 (Inspirational Music)</p> <p>4) 음악치료 활동 (Music Therapy Activism)</p>	<p>개인이 속해있는 공동체의 생태적인 관계들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음악 또는 음악적 경험을 사용하는 것.</p> <p>1) 예술참여 프로그램 (Arts Outreach Programs)</p> <p>2) 조직 음악치료 (Organizational Music Therapy)</p> <p>3) 치유음악 의식 (Healing Music Rituals)</p> <p>4) 감성 훈련 음악치료 (Music Therapy in Sensitivity Training)</p>	<p>생태적인 목적과 가치를 클라이언트 개인의 음악 치료와 결합시키는 것 또는 집단의 음악치료와 결합시키는 것 모두 포함.</p> <p>1) 가족 음악치료 (Family Music Therapy)</p> <p>2) 지역사회 음악치료 (Community Music Therapy)</p>	<p>개인 혹은 지역 사회에 중요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할 때, 그리고 목표와 과정이 여러 치료분야(정신과, 신경과, 재활 등)에 걸쳐 확장될 때.</p>

2016 KAAE 추계학술대회

## 아트홀릭(Artholic) 월례세미나 추진경과

## <아트홀릭(Artholic)> 월례세미나 추진경과

한국예술교육학회(회장·김순정·성신여대)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아트홀릭(Artholic)> 월례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트홀릭(Artholic)은 ART와 Holistic의 합성어로 저희 학회가 음악, 미술, 무용, 연극·영화 등 다양한 예술 분야가 모인 학회인 만큼 서로의 분야를 공유하고, 학회 회원 뿐만 아니라 예술에 관심 있는 학부생, 대학원생,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세미나 운영을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3월을 시작으로, 올해 전반기 아트홀릭에서는 '문화산업과 예술'을 주제로 '최근 공연의 CT트렌드 분석'(조준희·동국대학교 연극학부 교수), '융합예술교육의 오르프접근법 적용'(이희숙·한세대학교 공연예술학과 교수), '무용과 테크놀로지의 융합'(이지선·인하대학교 연구교수)의 강연과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후반기에서는 '문화산업과 예술·교육'을 주제로 지난 10월 '오케스트라 가사악기의 신경향에 관한 연구'(한경훈·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과 교수) 강연과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예술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였으며 매시간 뜻 깊은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매월 다양한 예술분야의 최근 연구주제 및 동향에 대해 전문 강사님의 강의가 진행되오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www.artsedu.co.kr](http://www.artsedu.co.kr)), 페이스북 ('한국예술교육학회', @artsedu2003),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의 변화로 일정이 변경되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 한국예술교육학회  
제 1 회 아트홀릭 월례세미나

## 최근 공연의 CT 트렌드 분석

강사\_ 조준희 ( 동국대학교 교수 )



일 시\_ 2016년 3월 26일 (토) 오전 10시 30분

장 소\_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실 2

문의\_ 한국예술교육학회 사무국  
email\_artsedu2003@naver.com Home\_http://artsedu.co.kr



한국예술교육학회  
제2회 아트홀릭 월례세미나



## 융합예술교육의 오르프접근법 적용

강사\_ 이희숙 ( 한세대학교 교수 )

일 시\_ 2016년 4월 30일 (토) 오전 10시 30분

장 소\_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실 2



문의\_ 한국예술교육학회  
email\_artsedu2003@naver.com  
Home\_http://artsedu.co.kr/



사단법인 한국예술교육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rts Education

제 3회 아트홀릭 월례세미나



## 무용과 테크놀로지의 융합

강사\_이지선 (인하대학교 연구교수)

일시 2016년 6월25일(토) 오전 10시30분  
장소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2

문의 한국예술교육학회사무국 | email\_artsedu2003@naver.com | artsedu.co.kr/



한국예술교육학회 제4회 아트홀릭 월례세미나



## 오케스트라 가상악기의 신경향에 관한 연구

강사 : 한경훈(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일시 2016년 10월 1일(토) 오전 10시30분  
장소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실2

문의 / 한국예술교육학회사무국\_artsedu2003@naver.com Home\_http://artsedu.co.kr  한국예술교육학회

## 2015, 2016 우수논문

- **우수논문 1 :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Harvard Project Zero)와  
미래 예술교육에 대한 전망**
  - 이지연 (조선대학교)
  
- **우수논문 2 : 지역문화예술교육의 현황: 울산지역 학교파견 예술강사들의  
인식분석**
  - 백경미 (울산과학기술원), 위미나 (부산외국어대학교), 최한울 (서울대학교)
  
- **우수논문 3 : 재외한인을 위한 한국전통공연예술교육의 현황과 과제 연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을 중심으로**
  - 양민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 **우수논문 4 :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위한 융합예술 프로그램 활용방안**
  - 정성희, 김형숙 (인하대학교)
  
- **우수논문 5 : 음악-과학 융합인재교육(STEAM)프로그램 개발:  
대중음악 악기 제작과 앱 작곡을 중심으로**
  - 양은주 (명지전문대학), 강민선 (국제예술대학교)

#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Harvard Project Zero)와 미래 예술교육에 대한 전망

이지언\* (조선대학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미래의 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탐구하기 위하여 철학자 넬슨 굿맨이 기획한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프로젝트 제로, Harvard Project Zero, 1967>를 연구의 핵심으로 삼는다. <프로젝트 제로>는 예술에 대한 인지적인 접근이라는 철학적 정신 및 방법론을 기초로 설립되었다. 또한 인지 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제로>의 예술교육은 인지적, 심리적 측면을 융합하는 다양한 예술교육의 학제적 실험이 진행 중이다. 연구는 <프로젝트 제로>의 철학적 정신을 바탕으로 어떻게 앱 세대에 대한 예술교육이 가능하며 필요한지 <프로젝트 제로>의 연구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제시카 데이비스의 실제적 사례들 및 가드너와 케이티 데이비스의 앱 세대 연구를 토대로 디지털 기술시대 예술교육의 의미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예술이 제기하는 질문과 인간의 경험, 공감하는 능력의 향상 등 앞으로 도래할 과학기술시대의 변화에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창의적인 생각과 표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데 있어 예술교육은 더욱 요청될 것이며, <프로젝트 제로>는 학교와 사회를 연결하는 미래 예술교육의 중요한 대안이 된다.

주요어 : 프로젝트 제로, 넬슨 굿맨, 하워드 가드너, 케이티 데이비스, 제시카 데이비스, 예술교육, 앱 세대

\* leezun@ewha.ac.kr

# 지역문화예술교육의 현황: 울산지역 학교파견 예술강사들의 인식분석\*

백경미\*\* (울산과학기술원) 위미나\*\*\* (부산외국어대학교) 최한울\*\*\*\* (서울대학교)

## 국문초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공교육 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을 통해서, 2005년 사업이 시행된 지 십년이 넘어선 2015년 현재, 8개 분야 4천 9백여 명의 예술강사들이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파견되고 있다. 이 사업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0년부터 진흥원은 전국 주요도시에 광역센터를 지정하여 학교선정과 강사배치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이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광역센터의 내실 있는 사업운영을 지원할 현장연구들이 요구되고 있으나, 그동안 사업현황과 효과분석을 위해 진행된 대부분의 설문조사들은 진흥원차원에서 전국규모로 실시되어 지역차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에서는 2014년에 실시한 울산지역 학교파견 예술강사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효과, 학교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경험,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과 센터의 강사지원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울산지역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해보고 이 조사결과가 향후 사업 추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특정지역 예술 강사들의 인식연구라는 점에서 향후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논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주요어 : 지역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지원사업, 학교파견 예술강사, 설문조사, 심층면담

\* “이 연구는 2014년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연구과제, 「울산지역 예술강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백경미 외, 2015)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제1저자 (kpaek@unist.ac.kr)

\*\*\* minawi14@gmail.com

\*\*\*\* woul@snu.ac.kr

# 재외한인을 위한 한국전통공연예술교육의 현황과 과제 연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을 중심으로\*

양민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한인들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국전통무용을 비롯하여 한국문화교육의 현황과 그 변화과정을 한국청소년문화교육센터 <난(蘭)>과 한국전통무용단 <소운(小雲)>의 활동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먼저, 상트페테르부르크 한인들의 한국전통무용 활동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2012년 초연 한 러시아어로 하는 마당놀이 <두 형제와 마술호박이야기>의 한국전통공연 예술의 현지화 교육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진단해 볼 것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 사회에서 대한민국과 거주국 양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의 양성과 한국문화의 적극적 향유를 위한 재외한인들의 한국전통공연예술교육의 현황과 그 과제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주요어 : 재외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인, 한국전통무용단 <소운>, 한국전통공연예술교육, <두 형제와 마술호박 이야기>

\* 2015년 11월 6일 재외한인학회 추계학술대회 '글로벌 한인 역사·문화 네트워크의 부문별 현황과 전망'에서 발표한 '한국 춤문화의 글로벌 모델 형성을 위한 쟁점과 전망'을 교육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수정·보완한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의 선행연구들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화 속의 한국 전통춤의 사회적 역할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무용기록학회지**, 15: 1-31; '소련 해체 이후, 한국 전통춤을 통한 러시아 한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변화 연구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한국청소년문화교육센터 <난(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27: 183-217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재외한인들을 위한 한국전통무용을 비롯하여 한국전통공연예술교육 현황과 그 과제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minayang919@naver.com

#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위한 융합예술 프로그램 활용방안

정성희, 김형숙\* (인하대학교)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을 대비하여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융합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유학기제의 추진목표 및 체계를 분석하고 시범학교 운영 모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자유학기제 융합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을 4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첫째는 수업 시수의 확보, 둘째는 독창적 프로그램 제공, 셋째는 전문 인력 활용, 마지막으로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시 학교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융합 프로그램 개발 사례를 제시하여 기존 교과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차별화된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을 살린 융합예술 프로그램의 활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어 : 자유학기제, 융합예술 프로그램, STEAM

\* 교신저자(khsook12@inha.ac.kr)

# 음악-과학 융합인재교육(STEAM)프로그램 개발: 대중음악 악기 제작과 앱 작곡을 중심으로

양은주\* (명지전문대학) 강민선(국제예술대학교)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음악 속에서 과학적 원리와 기법을 발견하고 음악과 과학·수학·기술교과의 교육적 융합을 통해 학습자가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이라는 STEAM 학습 준거 틀에 따라 해당 분야의 최신 동향과 학생들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학교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두 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첫째, '나만의 베이스 기타'는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베이스 기타의 악기를 디자인하여, 기타의 헤드와 바디를 제작하고, 현을 만들어 조립하는 활동을 통해서 악기에 들어 있는 수학적 원리와 과학적인 방법을 체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둘째, '나만의 앱 밴드'는 고등학교에서 스마트 폰의 음악 연주 애플리케이션을 탐구하고 과학적인 지식과 공학적인 절차를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협동적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이다.

주요어 : 융합인재교육, 음악·과학 융합형 프로그램, 창의적 설계, 음악중심 융합교육, 음악 애플리케이션 개발

\* ejy27@mjc.ac.kr

## 2016 KAAE 추계학술대회

---

2016년 11월 2일 인쇄

2016년 11월 5일 발행

- 발행인 : 김 순 정
- 사무간사 : 김 보 현, 배 현 경
- 발행처 : (사)한국예술교육학회  
0113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76가길 55  
(미아동, 성신여자대학교 운정그린캠퍼스) P동 918
- 사무국 이메일 : artsedu2003@naver.com  
편집국 이메일 : artsedu2003e@naver.com
- 인쇄처 : 도서출판 레인보우박스  
전화 02) 2032-8800(대표)

---

이 발표논문집은 2016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